

홍성공업고등학교, 자격증 따기가 가장 쉬웠어요

전기과 3학년 학생, 재학 중 8개 자격증 취득

홍성공업고등학교(교장 남상출)는 전기과 3학년 학생이 재학 중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평소 면면성실한 권 군은 3년 동안 교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총 8개의 자격증(전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승강기기기능사, 생산자동화기기능사, 정보보

기술자격(ITQ) A등급, 통신선로기기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기능사, 용접기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기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용접 등 다양한 분야까지 섭렵하는 권 군의 모습은, 현재 우리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주선광LTI에 취업이 확정된 권 군은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며, 실기 실습 또



한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친구들과 후배들의 자격증 취득에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기술

과 인성을 두루 갖춘 권 군의 모습은 여러 방면으로 재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담임교사는 “3년 동안 지켜봐온 학생은 평소 예의도 바르고 지성과 실력을 겸비한 최고의 홍성공고인이다”라며 임지를 치켜세웠다.

홍성공업고등학교에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 기술과 인성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질 높은 취업률을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부모가 하나되어 둘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한성진 기자

목천고등학교, 전국 최강 사이클 명문학교로 자리매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획득

목천고등학교(교장 유안순)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영주시에서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6명의 고등학교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함으로써 사이클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했다.

홍승민(2학년) 선수는 대회 첫날 개인추발 3km 경기 예선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결승전에서 긴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2일째 이건민(3학년) 선수는 1km 독주경기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획득, 이 부문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충남 사이클팀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 대회 3일째 홍승민 선수는 은메달에 이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해 포인트 25km 경기 결승에서 노련한 경



기운영 능력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트랙경기 대회 마지막 날 스프린트 경기 예선에는 한국주니어 신기록을 달성하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5일차 도로경기에는 전날의 여세를

몰아 홍승민 선수는 도로독주 25km 부문에서 다시 금메달을 추가하며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대회 결과 충남 목천고등학교 사이클팀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올해 2021 음성 전국사이클경기 대회와 2021 KBS 양양 전국사이클경기대회에서 달성한 종합우승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목천고 사이클부를 담당하고 있는 송준섭 감독은 목천고 한현조 지도자와 목천중 전장운 지도자의 오랜 노하우와 사이클에 대한 열정이 목천고등학교가 사이클 명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유안순 교장은 “어려운 코로나 여건에도 학업과 운동을 열심히 소화해서 좋은 경기 결과를 거둔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이클 명문학교를 지키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강현수 기자

보은동광초, 우리 학교만의 노래가 생겼어요

동광초등학교(교장 박종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다 함께 참여하여 ‘동광으로 Go Go’라는 노래를 제작했다.

이 노래는 보은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에서 지원하는 작은어울림 사업을 신청해 동광초등학교 교사 15명이 동아리 ‘B.T.S.(Boeun Teacher's Sounds)’를 만들어 1년간 활동한 결과이다.

노랫말 한 소절 짓기 공모행사를 거쳐 B.T.S. 동아리 구성원이 노랫말을 다듬었으며, 윤학준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 제작했다.

학교 교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2020년대의 문화감성을 생각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학교 노래를 만들게 됐으며, 특히 학생들의 요구사항인 랩 부분도 포함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은 5학년 학생은 “우리학교 노래가 생겼다는 것이 엄청 뿌듯하고 기뻐요. 엄마한테 얼른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동광초등학교는 다가오는 11월 5일 MBC 사계동행 콘서트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진천금구초, ‘10월 세계 공정 무역의 달’ 함께 하는 한걸음



금구초등학교(교장 김미영)는 10월 ‘세계 공정 무역의 달’을 맞아,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가치 있는 소비의 시작!을 주제로 ‘UBUNTU(우분투)’ 공정무역상점’을 열어 착한 소비와 공정무역의 가치를 전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을 직접 체험하며 아동노동의 현황과 문제점과 우리 주변의 제품을 소비할 때 고려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그 가치를 담은 다양한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 주변에 가치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알리는 캠페인을 실천 했다.

/이병준 기자

또한, 이러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교생회 회의를 통해 ‘Dream 드림 캠페인’에 동참해 유네스코 브릿지 교육 지원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김미영 교장은 “스스로 공정무역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꿈과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며 “나의 소중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임을 알고 더 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자라고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삽교중, 학생회 주관 사제동행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학생자치회를 통한 종목 선정 및 규칙 마련 돋보여

삽교중학교(교장 서소현)는 지난 20일 학생회 주관으로 사제동행 스포츠클럽대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3단계에 따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소독 등)을 준수하고 경쟁보다는 안전과 화합에 중점을 두어 학생과 교사가 하나가 되는 즐거운 스포츠 대회가 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모든 외부 교육활동이 축소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꿈과 끈을 발현하는 교육활동을 마련하고자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자치회의 주관으로 실시하게 됐다. 대회 운영에 앞서 코로나 19 방역 준수, 경기 종목 선정과 규칙, 팀별 부스 운영, 방송 지원 등 대회 진행 일체를 학생자치회의 협의 과정을 통해 추진됐으며, 학생안전부를 비롯해 전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스포츠클럽대회를 지원하고 참여했다.

모든 진행은 학생회 임원과 체

육교사가 맡았으며, 71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청팀과 백팀으로 참여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참여해 사제간의 화합을 이뤘으며, 달리기, 축구, 농구, 피구, 줄다리기 등 전통 종목 뿐만 아니라 제기차기, 2인3각, 큰공 굴리기 등 고전 종목 그리고 립보, 스포츠스태킹, 미션어택리기 등 현대 종목 등 다양한 경기를 했다.

특히 2인3각 경기는 학생과 교사가 한 팀이 되어 참여함으로써 모두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시간이 됐다.

서소현 교장은 학생자치회 주관의 금번 스포츠클럽대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한 사람의 소외되는 사람은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학생자치회의 주관의 스포츠클럽대회는 모두가 승리한 빛나는 하루였으며, 앞으로도 민주적인 학생자치회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용관 기자

서천교육지원청, 난독증 개선 훈련 프로그램 운영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은 지난 18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난독증 학생 대상으로 난독증 학생 개선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천과 출발선이 평등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찾고 학생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시작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서천군내 초등학교 중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적 검사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체적 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난독증 학생

을 발견했고, 대상 학생의 난독증 개선을 위해 이번 18일을 시작으로 총 10회기 동안 정·자각 훈련(음운인식 능력제고)과 단계별 읽기 유창성 훈련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천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는 “이번 난독증 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한글 책임 교육 실현과 더불어 기초학력 향상이 이뤄져 나아가 학생 개인의 삶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복 기자

부여여고, 제102회 전국체전 카누부문

금메달 1, 은메달 1 획득 쾌거



위를 획득했다.

특히 K-1 500M에 출전한 2학년 이한솔 학생은 쟁쟁한 3학년 학생들에 대항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로써 부여여고는 신진주(3학년), 이한솔(2학년) 학생이 △K-1(200M, 500M) △K-2(500M)에 출전해 ▲K-1 500M에서 금메달 1위 ▲K-2 500M에서 은메달 2위를 획득했다.

/정민준 기자

서령중학교, ‘충남교육 한글사랑 공모전’ 전 부문 석권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길

서령중학교(교장 유재현)는 지난 9일 개최된 ‘2021 충남교육 한글사랑 공모전’ 시상식에서 전 부문을 석권했다.

충청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1 충남교육 한글사랑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 부문 대표만 참석해 시상이 이뤄졌으며, 코딩프로그램 분야 중등 부 유품상(금상)을 차지한 성재혁 학생이 시상식에 참여했다.

한글사랑 공모전은 575돌 한글날 기념해 올바른 한글 사용과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서령중학교는 코딩프로그램 부문과 손수제작물(UCC) 부문 모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먼저 코딩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성재혁(으뜸상, 2학년), 원주한(금상상, 2학년), 황가람(보람상, 2학년), 김기주(보람상, 2학년) 학생이 수상했고, 손수제작물(UCC) 부문에서는 이종현(보람상, 2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또한, 575돌 한글날을 맞아 서령중학교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한글사랑 주간을 운영했다. 한글사랑 주간

에는 한글사랑 공모전 우수작을 상영하고, 한글 창제 원리 카드놀이와 한글사랑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8일 ‘데파가 있는 아침’ 시간에 진행된 한글사랑 퀴즈대회에는 전교생이 열띤 흥을 보내 줬다.

송수현 지도교사는 “한글사랑 공모전과 한글사랑 주간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말 우리글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발전시켜가자는 서령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기자

세종중, 제4회 전국 중학생 K-POP 경연대회 대상 수상

세종중학교는 댄스동아리 아라리 오가 한국 K-POP 고등학교가 주관한 ‘제4회 전국 중학생 K-POP 경연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충남 내포 흥에공원에서 16일에는 댄스 분야, 17일에는 K-POP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7일 분야별 상위 2팀, 총 4개 팀이 최종결선을 치른 결과 세종중 댄스동아리 아리오가 종합 대상(300만 원의 상금 및 상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 댄스 분야의 경우 전국 중학교 155개 댄스팀이 예선에 참가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으며, 이 가운데 본선에 올라간 20개 팀의 실력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동아리 지도교사 김수지 교사는 “이번 경연을 통해 선수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단합과 소통의 소중함을 느끼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한다면 꿈은 꼭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병천초, 2021 충남 학생창의수학탐구대회 대상 수상

병천초등학교(교장 한상경)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한 2021년 충남 학생 창의수학 탐구대회 수학 용어 쉽게 말하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수학 용어 쉽게 말하기 대회는 수학 주제어를 정하고 주제어에 대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 등을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설명하는 대회이다.

병천초등학교 2학년 김서연, 박선우 학생은 평소 친구들이 헷갈리는데 ‘직선, 선분, 변’을 주제로 선정, 동영상을 만들고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여한 박선우, 김서연 학생

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에 연습을 했는데, 연습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뿌듯했다.

수학 용